

인과성과 인간 동일성*

이좌용(성균관대학교)

【요약문】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이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려면, 사건 원인 외에 행위자 원인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원인은 법칙적·일반적 결정의 개념과 합리적·개성적 결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성의 인과적 역할은 법칙화할 수 없는 물질성의 여지를 남긴다.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의 가능성이다.

【주제어】 사건 원인, 행위자 원인, 인간 동일성, 인과 실재론, 결정의 개념

1. 사물의 통시적 동일성

친숙한 일상 개념을 빌어 기술된 다음의 소박한 실체 유물론과 인과적 결정론은 일단 받아들이어 보자.

(가1) 세상은 근본적으로 물질로 이뤄진다. 그것을 이룬 만물(萬物)은 무생물, 생물, 식물 및 동물 등으로 분류된다. 동물에는 지각하고 욕구하며, 궁리숙고하며, 선택하고 행위하는 '우리와 같은' 특별한 종류의 인물(人物)들도 있다. 물체가 아닌 영혼이나 귀신 등은 실재하지 않는다.

(가2) 세상 만사(萬事)는 인연(因緣)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충분한 곡절과 원인이 있다. 또한 그 인과적 결정의 원리는 엄격하고 법칙적이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2-041-A00078). 이 논문의 초고는 2004년 2월 5일 한국분석철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논평해 주신 임일환 교수와 비판적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새삼 감사드린다.

실체 유물론에서 '우리와 같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생물의 한 자연 종을 서술해 낼 수 있는 객관적 속성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늘의 근본과학은 미세 물리학이다. 그 설명체계는 가장 포괄적이며 자기완결적이다. 그것은 세상이 온통 극소한 미물(微物)들의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함축한다. 결국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근본적으로 극소한 미물들로 이뤄져 있기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물질로 이뤄진다는 것은 바로 그 극소한 미물들로 이뤄진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다.

세상에서 만물과 만사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련을 갖는가? 나는 다음과 같은 사건해명(가)이 가장 낫다고 본다. 만사는 만물의 만 가지 변화이다. 사건들은 물체들이 겪는 변화들이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한 물체가 한 상반된 속성을 취하는 바로 그 때이다. 동일한 장소를 동시에 여러 물체가 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건은 구체적 물체의 추상적 성분이다. 그런데 한 사건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일어날 수는 없으므로 추상적인 특수자라고 할 수도 있다. 물체들의 이런 저런 상태와 과정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때를 가지므로 넓게 보면 일종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모습 또는 속성을 지닌 한 물체는 이런 저런 사건들의 한 다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물체'보다는 '사물(事物)'이 정말 그 형이상학적 실상(實相)에 적절한 말이다. 그것은 '사건들로 이뤄진 물체'로 쉽게 개념화할 수 있는 걸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다음의 근본적 존재론을 일단 수긍하고 넘어가자. 미물들이 거물보다 근본적이다. 또한 물체들보다 사건들이 근본적이다. 여기서 '근본적이다'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과적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세상만사 생멸무상(生滅無常)의 근본적 원천은 미시적 사건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인', '인연' 및 '법칙'의 개념은 친숙하지만 불투명하다. 좀더 선명한 이해를 도울 겸해서 이제까지 일단 받아들인 사건 존재론을 새삼 다시 정리해보자. 흐르는 세월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 사물 a의 역사를 이루는 단계 단계의 다른 모습의 사물들을 a_1, a_2, \dots, a_n 으로, 또 그 단계들에서 그 사물의 변화들 즉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P_n 으로 지칭해보자. 다음과 같이 a의 역사적 단계가

7) Lombard, L. B.(1986)가 주장한 상식적 사건론이다. D. 데이빗슨의 구체적 특수자론과 김재권의 속성 예화론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칭될 수 있다.

$$a_1 = \langle P_1, P_2, \dots, P_n \rangle$$

$$a_2 = \langle P_2, P_3, \dots, P_{n+1} \rangle$$

⋮

$$a_n = \langle P_n, P_{n+1}, \dots, P_{2n} \rangle$$

$$a = \langle a_1, a_2, \dots, a_n, \dots \rangle$$

여기서 세월에 걸친 사물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단계별 사물들은 각기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즉, 그것들은 상이한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어떻게 동일한 사물일 수 있는가? 다른 속성을 지닌 단계별 사물들 a_1, a_2, \dots, a_n 이 어떻게 $a_1 = a_2, \dots = a_n$ 일 수가 있는가? 속성이 다른 사물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닌가? 이에 대해 내가 보기에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D. 루이스의 것이다.⁸⁾ 동일성은 자기동일성이다. 그러므로 통시적 사물 $a = \langle a_1, a_2, \dots, a_n \rangle$ 과 동일한 것은 a 자체뿐이다. 마찬가지로 a_1 과 동일한 사물은 a_1 뿐이다. 이제 통시적 동일성의 문제는 이렇게 제기돼야 한다. 단계별 사물들 a_1, a_2, \dots, a_n 은 어떻게 한 통시적 사물 a 의 부분적 원소일 수가 있는가? 그 편입조건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a_1, a_2, \dots, a_n 에 이르는, 그것들을 이루는 사건들의 교차적인 닮음과 연속적이고 직접적인 인과적 연출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다른 단계적 사물들은 이것들의 닮음과 연출에 자연스레 끼어들지 못한다.

2. 인간의 통시적 동일성

한 통시적 사물을 이루는 단계적 사물들 사이의 상대적 인연의 질긴 외줄이 그 통시적 동일성의 근본 바탕인 셈이다. 요컨대, 통시적 동일성은 인과적 연속성에 논리적으로 수반한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은 인물들에게도 옳게 적용되는 것일까? 이 물음의 의미를 선명히 하기 위해서 동일성과 인과성을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 인물은 사람의 한 보기이지만 세포의 수많은 보기들이고

8) Lewis, D. (1976) 참조.

분자의 훨씬 더 수많은 보기들이다. 개수를 셀 수 있게 하는 동일성은 개념 상대적인 셈이다. 그러니까 일정 공간에 있는 사물의 수를 그냥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람이란 사물, 세포라는 사물, 그리고 분자라는 사물 식으로 개별화하는 개념적 또는 속성적 단위에 상대해서만 그 개수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동일성은 상대적 동일성이다. 그것은 'x는 y와 동일하다'의 형식이 아니라 'x는 y와 동일한 F이다'의 형식으로 다가오는 동일성이다.⁹⁾

개수를 헤아리게 할 수 있는 인물의 개념이나 속성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한 인물의 통시적 동일성을 성립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논리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같은' 사물임을 변별해 줄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 '우리와 같지'만 '인물이 아닌' 사물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우리'가 징그럽기 그지없는 벌레들로 침대에 변신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물들일까. 그렇다. 벌레의 몸으로 숙고하며 선택하며 의도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여전히 우리들이라는 인물들로서 남아 있다고 하겠다.¹⁰⁾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통할 수 있는 행위자들'을 함의한다. '주관적으로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즉 행동에 담긴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는가? 나와 같이 의도하고 행동할 것이니까, '나와 같음'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물을 행위자로서 서술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변화를 의도적 사건들, 곧 행동들로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사물, 곧 '인물'의 동아리에 그것을 소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물의 어떤 변화, 곧 인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사건들의 인과적 인연에서 벗어나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의도적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의문은 사건 원인론과 행동의 의도성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사건들은 인과적 인연에 따른다. 지나간 사건들에 의해 법칙적으로 결정된다. 행동들도 사건들이다. 어떻게 그것들이 합리적·능동적·의

9) Geach, P. T. (1973) 참조.

10) 소설에서이지만, 사람인 농장주를 내쫓고 동물농장을 이끌어가는 돼지 나폴레옹은 충직한 인물이라고 하겠다.

도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의문은 '결정'의 두 가지 쓰임새에 대한 논리적 반성을 촉구한다.

- (1) 철수의 팔이 올라가는 사건(e2)은 철수(a)가 결정한 것이다.
- (2) 철수의 팔이 올라가는 사건(e2)은 팔이 올라감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철수의 욕망(e1)이 결정한 것이다.

- (1) $a \rightarrow e2$ (인물 \rightarrow 사건)
- (2) $e1 \rightarrow e2$ (사건 \rightarrow 사건)

(1)과 같은 진술이 (2)와 같은 진술로 환원될 수 없다면, 그리고 둘 다 '원인적' 결정을 뜻한 것이라면, 정말 '원인'과 '결정'의 새삼스런 개념적 지도와 형이상학이 요구된다. 한 쪽은 행위자 자체를, 다른 한 쪽은 행위자에게 일어난 욕망이란 사건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결단적', '선택적', '의도적' 행동의 사례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있다. 그 행동의 특성을 기술한 '결단, 선택, 의도'는 과거사에 의해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님을 내포한다. 선택적인 의도적 행동의 경우에 그 원인을 그 행위자에게 돌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생활이다. 일상적 생활은 행위자 원인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그럼에도 '변화가 변화를 부른다' 및 '일이 일을 일으킨다' 및 '일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상식으로도 명백해 보이는 원리는 사건 원인론을 거듭 강조한다.

나는 행위자 원인론의 한 의미를 여기서 살려보고자 한다. 이 세계를 이룬 자연적 사물에서 행위자 원인의 능력을 갖는, 인성(人性)의 특성을 지닌 사물은 극소수이다. 인성(人性)은 인연의 일반적 흐름을 벗어나서 의도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성(個性)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동은 개성적 사건이다. 그것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 개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법칙적 일반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 동일성의 형이상학적 문제를 해소시킨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인물 a10이 그 때 그 인물 a1과 동일인(同一人)임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이 그 동일성을 성립시키는가? 이런 의문은 인물의 일반적 변화들, 인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사건들이 그것의 인과적

힘과 역할의 전부라는 사건 인과론에서는 궁금해진다. 인물의 일반적 변화를 떠나서 인물이 나뉘어 가는 원인적 힘은 없기 때문이다. 원인적 실체는 일반적인 사건들이고 그것들은 끝없이 드나드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를 결정하는 인물 나뉘어 가는 원인적 힘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변화하는 한 인물의 역사적 원천임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인물의 통시적 동일성의 형이상학적 의문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시기의 인물 a_1 과 다른 시기의 인물 a_{10} 을 동일시할 수 있는 올바른 원리와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3. 행위자 원인의 개념¹¹⁾

행위자 원인의 '원인'은 이해될 만한 것인가? 행위자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철수는 아들을 낳고자 한 그 아버지의 욕망의 결과라고 볼 수 없을까. 안된다. 그 결과는 철수의 태어남이란 사건이지 철수라는 사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철수는 '팔을 올림'의 의도적 행동의 원인일 수가 있다. 사건의 결과일 수는 없어도 사건의 원인일 수는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또한, 행위자 원인은 그 결과와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에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행위자와 행동의 인과관계는 법칙적일 수가 없다. 덕분에, 행위자의 자유의 터전은 확보될 수 있지만 인과적 인연의 법칙성과 엄격성에 빈틈이 생긴다. 나는 이런 사항들이 행위자 원인을 이해하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실점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 득점을 얻는 이론적 논거는 이렇다. 궁리 숙고 끝에, 가능한 선택들, 가능한 행동들을 놓고서 한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하지는 않지만 직접 깨닫고 있다. 자신의 내면적 과거사는 가능한 선택(행동)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고독한 행위자 자신 뿐이다. 그것은 행위의 자유와 책임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사건 원인은 그러한 실존적 결단 상황에 마주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득점 사항에 관해 사건 인과론은 다음과 같이 반대할 수 있다. 욕망

11) 행위자 원인에 관한 생각은 O'Connor (ed., 1995)와 O'Connor (2000)에서 추스려 얻은 것이다.

과 믿음에 대한 내면적 검사 과정을 거쳐 선택이나 결정 또는 의도가 형성된다. 그 의도가 뒤따른 행동을 결정한 근접 원인 사건이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도한 느낌을 갖게 한 그 고독의 과정은 내면적 검색과 계산의 과정 끝에 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도가 행동의 원인 사건이다. 실존적 결단의 느낌은 행위자를 행동의 원인으로 추론할 증거력을 주지 못한다. 이 반론이 제시한 인과적 연줄은 이런 것이다.

(A) 믿음·욕망(e1) → 의도(e2) → 사건(행동 e3)

이 연줄에 대한 행위자(a) 원인의 대안은 다음의 하나일 것이다.

(B1) 믿음·욕망(e1) → a의 의도(e2) → 사건(행동 e3)

(B2) 믿음·욕망(e1) → a의 의도적 사건(행동 e3)

(B1)과 (B2)에서 'a의'는 의도와 사건의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 의도와 사건의 형성적 원인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것이다.

(B1)은 사건의 근접 원인인 의도가 행위자적 원인을, (B2)는 행동이 행위자적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B2)는 '의도'가 행동에 앞선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행동을 구성하는 부분 사건임을 보인 것이다. 나는 (B2)의 해명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행동 상황에서는 행동 기술과 의도 기술은 논리적으로 유리될 수 없으며 시간적으로 행동과 의도는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이다.¹²⁾

12) 한 사건의 행동적 특성은 외재적인가, 아니면 내재적인가? (A)와 (B1)은 외재적 원인이 그 사건을 행동이게 만든다고 본다. 그 원인이 의도, 욕망 및 믿음 등의 정신 사건이므로, 그 사건은 행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인과적 해명이며, D. 데이빗슨(1978) 이래로 행동 해명의 주류를 형성한다. (B2)는 한 사건을 행동이게 만드는 특성이 그 사건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한 행동은 비행동적 의도와 비행동적 몸짓의 한 복합 사건이라고 본다. 비트겐슈타인(1958)은 이런 의문을 표한 적이 있다. "내가 나의 팔을 올린다는 사실에서 나의 팔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빼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아 있을까?(P. L. §621) (A)와 (B1)의 외재적 해명은 실제로 남는 것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B2)의 내재적 해명은 팔을 올리는 의도가 남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Baker, L. R. (1998, p. 254)는 다음의 반사실(counterfactual)이 남는다고 대답한다.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팔의 올라감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남는 것은 없다는 대답에 속

30 논리연구 7집 1호

행동이 의도와 사건의 합성 사건이라면 인과적 행동 해명의 고질인 '빗나간 인과(deviant causation)'에 걸리지 않는다. 시동키가 걸림과 동시에 운행이 시작되듯이 의도의 등장으로 행동은 시작된다. 시동키가 빠지면 동시에 운행이 정지되듯이 의도가 퇴장하면 동시에 행동도 중단된다. 빗나간 인과의 한 사례를 놓고 생각해보자. 복돌이를 살해할 의도를 품고 과속으로 달려가다가 길을 건너던 허름한 사람을 본의 아니게 치워 죽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복돌이였다. 복돌이에 대한 의도적 살인인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살인 의도가 있고 그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므로, (A)와 (B1) 식의 인과 해명에 따르면 의도적 살인이 된다. 그렇지만 (B2)에 따르면 그것은 의도적 사건이 아니다. 살인의 사건은 있었지만 살인의 행동은 없었다. 그 살인사건은 살인의도를 내재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인과 실재론

이 마당에서 인과 개념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반성이 필요하다. 인과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세계에 대한 어떠한 기술과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각성에서 논의를 열어보자. 다음의 기초적 진술은 주관적인 한 감각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한 사실에 관한 것인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할 수가 있다.

이것은 붉다.

의미1: 이 감각은 붉음의 성질을 갖는다.

의미2: 이 감각의 원인적 사물이 붉음 성질의 원인인 붉음 속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a가 b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에서 a 다음에 b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빼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아 있을까? 마찬가지로, 반사실이 남는다.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답이다. 이것은 '행동' 및 '원인'에 대한 환원주의적 유명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첫 진술은 주관적 경험을, 둘째 것은 객관적 세계를 의미한다.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그 진술은 통상 둘째 의미로 쓰인다. 첫째 의미가 인식론적으로 더 근본적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둘째 의미가 더 근본적인 세계에 관한 것이다. 일상적 의미의 세계는 객관적이다. 그런데 그 객관적 세계는 인과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당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원리상 이론적으로 추론된 세계이다.

관찰할 수 없는 미세 세계에 대한 설명적 서술도 인과 관계를 빌지 않고는 추론될 수 없는 앞의 형식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대충 이렇게 형식화될 수 있다.

관찰된 새로운 자료 Q, 그리고 관련 이론 T

미세 세계에 관한 서술 P가 Q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인과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P는 인식적으로 정당하다.

세계의 근본입자, 이를테면 전자, 쿼크 등은 복잡한 인과 관계들과 이론들을 전제로 이론적으로 추론된 것들이다. 그 형식을 '최선 설명에로의 추론'으로 부를 수 있다.

인과 관계 자체도 그렇게 추론된 이론적 관계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인과 관계의 실재성에 대한 회의론적인 현대 전통의 원인적 창시자인 D. 흄은 인과 관계를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¹³⁾

(인과) e1은 e2의 원인

(경험적 자료) ㉠ e1 다음에 e2, ㉡ e1과 공간적 연속선상의 e2, ㉢ e1과 닮은 사건에는 언제나 뒤따르는 e2와 닮은 사건(유형적 상례), ㉣ e1이 없었더라면 e2가 없을 것임(가상).

13) Hume, D. (1975) pp. 76-77 참조.

이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식은, 인과문의 의미는 자료문의 의미 바로 그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인과 관계는 그런 경험 자료에 근거해서 추론된 이론적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물리학의 이론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론적 실재성이 평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방식이 인과론의 현대적 주류이다. 이른바 상례(regularity) 이론, 반사실적 조건(counterfactual condition) 이론, 또는 필요충분조건 이론은 모두 흄의 분석을 인과의 의미론적 또는 존재론적 해석으로 활용한 것이다. 인과 관계는 근본 세계에서 진술될 필요가 없다고 본 셈이다. 요컨대, '인과문'은 그 '경험적 자료문들'의 축약문에 그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의 인과 이해는 경험적 자료에 인식론적 의미만을 부여한다. 나는 이 실재론적 이해가 더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음의 문제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은 근본적인가, 아니면 해명이 필요한가? 즉 인과적 사실은 근본적 사실인가,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사실인가? 인과 관계와 법칙의 논리적 관계는 무엇인가? 법칙의 의미론적 또는 존재론적 지위는 무엇인가?

이 물음의 하나하나에 깊은 논의가 활발하다. 거기서 가장 온당한 해명은 이러하다. '원인이다'는 '일으키다', '초래하다', 및 '야기하다'의 뜻이다. 그것은 'e1이 e2를 일으키다'의 경험적 증거로서 흄의 분석 자료를 이해한다. 친숙하게 이렇게 해석해 보자. 'e1이 e2를 일으킨다'의 믿음이 정당하려면 우선 e1과 e2가 시간적으로 앞뒤에 있어야 하고, 인연이 닿아야 하며(공간적 접촉), 연분이 맞아야 하며(유형적 연결), 우리가 인연의 고리(필연)를 느껴야 한다.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접촉의 요건은 인과적 사건들이 특수자이어야 함을, 유형 연결의 요건은 그 사건들의 추상적 속성들이 서로 맞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나아가서, 가상의 요건은 그 연분의 맞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받아들여야 하는 온당한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은 'e1이 e2를 일으키다'의 인과적 사실이 설명돼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근본적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상식은 이렇게 캐묻는다. 특수자 e1이 어떻게 특수자 e2를 초래하는가? e1의 무엇이 e2를 야기하는가? 그 소박한 대답은 e1과 e2의 연분이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분, 이 인연 원리가 무엇인가는 정

말 과학적 탐구의 과제이다. 맞는 그 연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도 e1이 e2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 안다. e1과 닮은 일은 늘 e2와 닮은 일을 가져왔고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천생연분이었음을 느끼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다. '날아온 야구공이 유리창을 켜다'는 '야구공의 충돌(e1)이 유리창의 깨짐(e2)을 일으켰다'를 의미한다. 일상인도 쉽게 그 인과적 사실을 안다. 그 증거는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충돌의 무슨 성분이 그 깨짐의 무슨 성분과 늘 동반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앞의 몫은 과학자에게 넘겨야 한다. 요컨대 인과적 사실은 근본적이지 않다. 더 근본적 사실은 속성들의 동반관계, 아니면 필연관계이다. 이는 법칙에 대한 어떤 의미의 실재론을 지지한 것이다.¹⁴⁾ 여하간에, 그 법칙들은 또다시 이론과학의 탐구과제이며 그 탐구방식은 근본적으로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일 것이다.

5. 원인, 이유, 행위자

일으킴의 원인 관계에 대한 실재론은 행동을 일으킨 자로서의 행위자 원인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일으킴'을 '일어남'의 어떤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흠적 전통의 인과 유명론에서 행위자 원인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인과 유명론, 사물 유명론, 행위자 유명론 및 인간의 동시적 동일성에 대한 유명론은 한통속의 개념론이고 존재론이다.

행위자와 행동의 인과적 사실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근본적 사실일 수 없는가? '철수가 팔을 올린다'를 '철수가 팔을 올리는 행동을 일으킨다'의 인과적 사실로 해석하고 논의해보자. 그 사실은 다음의 물음에 대한 설명적 대답을 요구하는가? 철수의 '무엇'이 그 행동을 일으키는가? 철수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음의 것은 철수의 '욕망과 믿음'이 그 행동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14) Armstrong, D. M. (1983)에서 이런 법칙 실재론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 있었다.

(C) 철수는 팔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철수는 팔을 올림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그 때문에), 철수는 팔을 올리는 의도를 갖는다. 그리고 팔을 올리는 행동을 한다.

팔을 올리지 말라는 담당의사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궁리숙고 끝에 작심하고 철수가 의도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간주하고 보자. 이 설명은 철수에게서 일어난 욕망과 믿음의 원인적 힘만이 아니라, 작심자(作心者)로서의 원인적 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작심(作心)이나 결심(決心)은 과거지사에 결정적인 충분한 원인을 두고 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그럼, 그 마음의 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그럴듯한 자연스런 대답은 바로 작심자 또는 결심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 대답은 사전적 원인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자 원인의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다. 앞의 (C)설명에서 그러한 행위자 원인의 개념이 소외돼 있으면, 그것은 행위자 원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자 원인처럼 보인 것이 실은 전통적인 사건 원인임을 밝힌 것일 뿐이다.

그럼, (C)설명에 어디에 행위자 원인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욕망과 믿음을 갖는 철수가 아니라 그 의도를 갖는 철수에게 살아 있다. 의도는 욕망과 믿음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행동에로의 능동적인 상태이며, 행위자의 결행(決行)의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행위자의 욕망과 믿음은 수동적이다. 그 주어진 욕망들과 믿음들의 거친 힘을 깨닫고 되새기면서 행위자는 의도적 결정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욕망과 의도의 차이는 단적으로 이렇게 밝혀질 수 있다. 우리는 상반된 욕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상반된 의도를 가질 수는 없다. 글을 더 쓰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만 쓰고 술마시고 싶은 욕망도 있다. 그런데 그런 상반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글을 더 쓰려는 의도를 가지면서 그만 쓰고 술마시려는 의도를 가질 수는 없다. 상반된 의도를 갖는 것은 불합리하기는커녕 불가능한 일이다. 글을 더 쓰는 행동과 그만 쓰는 행동은 동시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의미론과 존재론에서 의도는 행동과 직결해 있다. 행동이 없는 의도는 무의미하다. 의도가 없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도를 가지면서 행동을 시작하고 의도를 잃으면서 행동을 그만둔다.

작심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인물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이며 의도의 자유이다. 그것은 욕망과 믿음의 자유가 아니다. 창공을 솟구쳐 오르는 솔개를 보면서 갖게 되는, 새처럼 날고 싶다는 욕망과 그처럼 날기는 불가능하다는 믿음은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행위자에게 일어난 욕망이 의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극단적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자살에의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 번도 자살을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존에의 욕망이 무엇보다 강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살을 의도하고 결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유'와 '원인'의 개념을 새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이유) e1은 e2의 이유이다 ↔ e1은 e2를 정당화한다.

(원인) e1은 e2의 원인이다 ↔ e1은 e2를 일으킨다.

행동을 위하여 고심(苦心)하는 인물은 마음에 저장돼 있는 욕망과 믿음의 목록을 뒤지면서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찾는다. 행위자의 궁리숙고는 후보 이유들에서 결정적 이유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그 때에 행위를 '결정'하는 이유를 '결정'하는 일은 행위자의 몫이다. 결정적 이유를 결정한 순간에 의도는 결정되고 행동에 시동이 걸린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인과적 연줄을 그려볼 수 있다.

욕망·믿음(e1) → {행위자 → 행동(e2)}

이 연줄에서 욕망(e1)은 행동 속의 의도(e2)를 일으켰지만 결정하지는 못한다. 행위자의 결의(決意)에 비로소 그것은 결정된다.¹⁵⁾ 행동을 일으킨 욕망과 믿음은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 정당화는 의미적이고 평가적인 관계화로서

15) 이유는 행동의 원인이지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36 논리연구 7집 1호

언어놀이를 즐기는 행위자들의 생활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일으키는, 행동의 이유이면서 원인인 욕망과 믿음의 정당화 또는 합리화의 능력은 행위자의 궁리숙고 덕분에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의 '이유'에 맞는 정의를 위하여 앞의 '이유' 해명은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

(이유*) e1은 e2의 이유이다 ↔ 행위자가 보기에, e1은 e2를 정당화한다.

6. 결정의 두 개념

인과관계에 대한 사건론적 해명과 설명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동일성'을 한갓 말뿐인 것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개개인으로서는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세월의 변화 앞에서도 변함없는 동일인일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는 일반적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 역사적 생활의 전제이기도 하다. 인과관계의 원인 항목에 행위자를 놓는 새로운 인과 해명은 그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자유와 동일성에 관한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에 관한 사건론은 개개 사건의 일반성에 기인한 법칙적 결과의 개념만을 받아들인다. 반면에, 원인에 관한 행위자론은 개개 인물의 개성에 기인한 합리적 결과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사건론은 법칙적이고 일반적인 결정의 개념만을 인정하는데, 행위자론은 합리적이고 개성적인 결정의 개념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원인에 대한 사건론과 행위자론은 결과적 결정에 대한 상이한 두 개념인 셈이다. 합리적 결정의 개념은 서두에서 받아들인 소박한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인과적 결정의 원리는 '엄격하고 법칙적이다'의 의미를 다소 약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인물 개개인의 역사적 동일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는 인과에 관한 사건론적 해명의 의미론적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적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사건들뿐이고, 인과적 연분이 맞는 것은 그 일반적 속성들뿐이라면, 그 사건들과 그 일반 속성들로 환원될 수 없는 인물 개개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인과적 힘과 역할은 존재성의 일반적 지표이다. 사건론적 해명에서 인물은 인과적 힘의 행사 단위가 아니다. 또한 인물 개개인의 개성도 인과적 역할의

단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물 개개인은 인과적 존재 세계에서 하는 일도 할 일도 전혀 없는 셈이다. 하는 일을 굳이 들어 본다면 들락날락하는 사건들의 거처 또는 거점의 역할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개개인에 대한 언어를 갖고 있다. '동일인'의 역사성은 말뿐이다. 형이상학적으로 실 없기 짝이 없는 것이다. 굳이 말하라면, '동일인'으로 불리는 역사적 거점들 사이의 인과적 닮음과 연속성이 그 '동일성'의 실질적 모습이고 관계이다. 이것은 역사를 갖는 동일인에 대한 유명론이다. 이것은 인과 사건론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인간 동일성의 문제를 오늘의 철학적 무대에 올려놓은 D. 파핏¹⁶⁾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상기해 보자. 인간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동일성의 문제는 실은 살아남음(survival)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심성의 연속적 닮음이 살아남음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동일성에 대한 환원주의적 유명론의 한 귀결이다.

원인에 대한 행위자론은 인물 개인의 원인적 힘과 그 개성의 원인적 역할을 전제하므로, 인물 개인의 존재와 역사적 동일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문은 아예 의미가 없다. 그것은 실없는 의문일 뿐이다. 사건 독립적인 행위자의 역사적 동일성은 직관적인 단순성에서 성립해 있는 사항이다.

행위자 원인의 최대 약점은 원인일 수 있어도 결과일 수 없는 이상한 창조자의 지위로 우리와 같은 인물들을 격상시킨다는 점이다. 우리의 행동은 선택적이고 결단적이라는 의미에서 창조적일 뿐이다. 창조자의 지위로 인물 자체를 침소봉대시키는 것은 유물론적 상식에 어긋난다. 자유와 동일성에 관한 상식과 직감을 설명적으로 구제하는 역할 덕분에 정당성을 획득한 행위자 원인의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인물 개개인의 개성이라는 특수 속성이 그 행위자 원인의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그 약점을 버리고 그 강점을 앞으로 살리고자 한다. 우리와 같은 인물의 자유롭고 의도적인 행동은 법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결정은 행위자의 특수한 개성이 개입한 결정이다. 그렇기에 일반적 원리에 따라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개성적 상태 또는 사건이 과거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특수한 개성적 사건의 형성이 일반 법칙에 따르는 것이

16) Parfit, D. (1984), pp. 443-6 참조.

아니라는 것뿐이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그의 개성을 이해하는 합리적 설명이다. 그것은 그 개인이 이성적 의지를 갖는, 우리와 같은 행위자임을 전제한 인과적 설명이다.

그럼 이제 심성(心性)에 대한 김재권의 기능주의적 환원 전략의 시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간 동일성을 인과적 개성에서 찾은 이 논의의 마당을 닫고자 한다. 김재권 전략의 첫 단계는 심성들의 차이를 그 인과적 역할의 차이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적 역할은 물성(物性)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한 심성 M1을 특징적으로 양화한 물성 P와 그 인과적 역할 C1을 빌어 다음과 같이 개념화한다.¹⁷⁾

1) (정의) M1 = $\exists pC1(p)$

이 정의는 한 심성이 여러 물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이 개념화에 따르면, 한 인물 a가 심성 M1을 갖는 것은 다음을 뜻한다.

2) (정의) M1a = $\exists p(C1(p) \& pa)$

a에서 인과적 역할 C1을 맡고 있는 물성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는 경험과학이 풀어야할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인 의문이 대뜸 생겨난다. 심성 하나하나의 유형적 차이는 그 인과적 역할의 차이라고 하자. 그럼, 물성 하나하나의 유형적 차이는 무엇인가? 요컨대, 물성의 개별화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도 그 인과적 역할, 더 정확히는 그 법칙적 역할의 차이라고 보도록 하자. N. 굿맨 식으로 말하면, 법칙들은 예측적 투사의 가치를 인정받는 술어들에 의해 구성된다. 인과법칙을 빌어 경험 과학이 파악한 그 인과적 역할은 a에서 물성 P1의 몫이었다. 그럼, 이제 a의 심성 M1은 물성 P1과 동일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환원) a의 M1 = P1

그런데 심성의 다수 실현 가능성은 이렇게 말한다. M1의 그 인과적 역할은 a와 같은 자연종에서 물성 P1의 몫이지만 b와 같은 상이한 자연종에서는 상이한 물성 P2의 몫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환원이 가능하다.

17) 김재권(1999), pp. 178-188, 김재권(2000), pp. 81-103 참조.

4) b의 M1 = P2

동일해 보이는 한 심성 M1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속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따라서, 심성은 범자연적 법칙망을 구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3과 4의 종제한적 환원이 가능한 것은 1과 2의 정의에서 심성 소유자의 원인적 역할을 무시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느슨한 의미에서나마 심성들의 인과 법칙적인 역할을 객관화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심성에 관한 기능주의적 개념화는 행위자의 능동적 속성을 아예 사상(捨象)해 버린다. 그것은 행위자 원인을 소외시킨 것이다.¹⁸⁾ 그 덕분에 심성은 종제한적이거나 물리적 유형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 행위자의 원인적 힘과 그 개성의 원인적 역할을 살리는 것은 물리적 유형화가 불가능한 물질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없는 물질성의 허용은 행위자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이다.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없는 감각성의 허용이 인식자 개인의 주관과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이듯이, 법칙망을 벗어나 있는 개성의 원인적 역할을 수용하는 것은 하향적 원인작용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래서 물리적 설명체계의 자폐성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 물음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물의 개성적 역할이 미세 세계의 인과작용에 독립해 있다고 여겨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미세 세계의 법칙이 확률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는 오히려 개성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

18) 이좌용(2001)은 행위자의 원인적 힘을 소외시키는 기능주의에 대한 한 비판이다.

참고문헌

- 김재권,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 하종호 역, 철학과 현실사, 1999.
- _____, 극단에 선 물리주의』, 제1회 석학연속강좌, 아카넷, 대우재단, 2000.
- 이좌용, “물리적 주관과 의식 경험”, 『철학적 분석』 3호, 2001, 3-32쪽.
- Armstrong, D. M.,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1983.
- Baker, L. R., “What we do: A Nonreductive Approach to Human Action”,
J. Bransen & S. E. Cuypers(ed.), *Human Action, Deliberation
and Caus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pp. 249-270.
- Davidson, D.,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Cambridge Univ., 1978.
- Geach, P. T., “Ontological Relativity and Relative Identity”, M. K.
Munitz(ed.), *Ontolog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3, pp.
287-302.
- Hume, D.,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Selby-Bigge &
Nidditon (ed.), Clarendon, 1973.
- Lewis, D., “Survival and Identity”, A. O. Rorty(ed.), *The Identity of Pers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p. 17-40.
- Lombard, L. B., *Events: A Metaphysical Study*, London, 1986.
- O'Connor, T., (ed.), *Agents, Causes,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Persons and Cau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Parfit, D., *Reasons and Persons*, Clarendon, Oxford, 1984.
- Sankey, H., (ed.) *Causation and Laws of Natur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 Vollmer, F., *Agent Causal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G. E. M. Anscombe, trans., The
Macmillan, 1958.